



上海 朱家角 © 신수빈. 2017



창간호 인사말

Opinion

중국어 교사 선생님, 예비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외대 중국학부 학부장 김동하 교수입니다. 중국어 교수법과 학습에 미약한 도움이 되고자 국내 최초 학부 단위의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매 회 충실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중국학부 소식

News

● 2022 수시, 부산 사립대 중 2위, 지원자수는 1위 기록

지난 9월 14일 마감된 2022년 대입 수시 결과 부산외대 중국학부는 81명 모집에 310명이 지원해 3.8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부산 지역 사립대 중국관련 학과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전체 지원자 수로는 1위를 기록했다. 정시는 12월 30일부터 인터넷 접수가 시작되며, 수시 미등록 인원과 정시 모집인원 9명(일반전형 가군)에 대한 입시가 진행된다.



● 전국 대학생들이 발표 역량을 겨루는 제14회 전국 대학생 중국어 PPT 대회가 9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COVID-19로 인해 비대면 형식으로 치뤄지는 이번 대회에는 '중화권 취창업을 위한 나의 필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100여개 대학생들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자세한 대회 공고는 중국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신청마감: 10/10)



● COVID-19 불구, 중국 5개 대학에 교환학생 12명 파견 (2021.9)

부산외대는 COVID-19에도 불구하고 복단대, 남경대, 북경외대 등 중국내 5개 대학에 12명의 교환학생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단기 및 장기(1학기, 1년)는 물론 복수학위제(2+2)로 출국하였으며, 중국 도착후 3주간의 격리 조치를 무사히 마친 후 모두 안전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다. 이들 중 10명은 중국학부 재학생이다. 부산외대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 교류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다.



●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COVID-19로 언택트 교육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자 학습 동기와 몰입감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가 생겼다.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외국어 교육에서 학생들의 배우려는 동기를 이끌고, 온라인 수업에 능동적 참여를 도와줄 방법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주목하자. 게이미피케이션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과 게임이 통합된 교육용 게임뿐만 아니라 비게임적 상황에 게임 메커닉스와 게임적 사고를 적용하여 학습자의 몰입감과 문제해결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Kahoot, Quizlet과 같은 다양한 게임러닝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ChineseSkill이나 Duolingo와 같은 중국어 학습용 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실제적인 현장감을 줄 수 있는 Google Arts & Culture, VR博物館와 같은 VR러닝도 개발되고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는 수업을 설계할 때 유의할 점은 즐겁고(Enjoyable), 교육적 효과가 있어야 하며(Effective), 기억에 남고(Memorable), 지속가능해야(Sustainable) 한다. 필자가 강의실에서 체험하기로는 수업시간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함이 가장 중요했다.



이효영 교수



중국어 티칭에 도움 되는 사이트

● 후장 한어 (<https://cn.hujiang.com>)

종합적인 중국어 학습 사이트이다. 초급과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초급반에서는 발음·한자·기본회화를, 고급반에서는 듣기·읽기·어법·연습 등을 배울 수 있다. 문화와 오락 코너에서는 영화·TV·음식·노래 등을 영상과 함께 학습할 수 있다.





● 통역과 번역 노하우



심지연 교수

외국어 실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누구나 통역과 번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에 해당되는 사실이다. 통역과 번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지적 호기심이 커야 한다. 평소에 뉴스듣기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통역은 아는 만큼 잘 들리고 유추도 가능해 현장에서 반응이 빨라진다. 번역은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어 번역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관심 분야는 더욱 깊이 있게,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청취와 독서의 생활화가 중요하다.

둘째, 모르는 것이 나오면 바로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평소 아는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실수와 오역을 줄일 수 있다. 사전 찾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은 금물이다.

셋째, 자신만의 표현정리 노트를 만든다. 중국어 단어를 우리의 한자어 발음으로 통역하거나 사전에 기재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어색할 때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신만의 표현노트를 만들어 수시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 노트는 비상시에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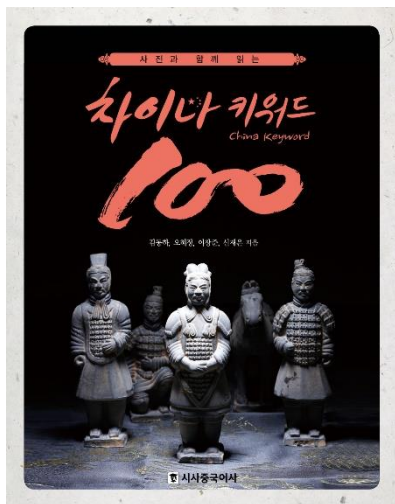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모국어와 외국어 실력을 함께 길러야 한다. 매일 꾸준히 요약을 하거나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한국어 맞춤법과 중국어 발음 한글표기법도 숙지하는 것이다.



도서 소개

Books

● 사진과 함께 읽는 차이나 키워드 100 / 김동하 외 / 2019년 / 시사중국어사



최근에 나온 중국학 종합 입문 서적이다. 인문·자연지리, 언어와 문자, 역사,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산업, 사회 문제, 생활과 문화, ICT와 4차산업혁명 등 8개 카테고리 나뉘어 있으며, 그 아래 100개의 키워드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사진과 함께 실었다.

중국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흥미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는 교양서 겸 학습 교재이다. 부산외대 중국학부에서는 1학년 필수과목인 '중국학 입문'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뉴스레터 창간호 이벤트

상품 후원 :  시사중국어사

- 뉴스레터 구독 신청자 중 선착순 2명(교사1인, 고교생1인)과 추첨을 통해 추가 1명(총3명)에게 이번 호 소개 도서인 '차이나 키워드 100' 을 1권씩 보내 드립니다.

▶ 이메일: china@bufs.ac.kr ▶ 메일 제목: 도서 신청 ▶ 보낼 내용: ① 이름, ② 소속 학교, ③ 학생 혹은 교사 구분, ④ 받을 주소



중국어 학습법

Leraning

● 중국어 생활 회화

qù fú shān wài dà yào zěn me zǒu?
去釜山外大要怎么走?

부산외대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qǐng wèn , qù fú shān wài dà yào zěn me zǒu?
A: 请问, 去釜山外大要怎么走?

실례합니다. 부산외대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kě yǐ zuò gōng gòng qì chē
B: 可以坐公共汽车。

버스를 타면 돼요.

yào zuò jǐ lù chē?
A: 要坐几路车?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zuò sān lǐng yāo lù zhí jiē dào
B: 坐301路直接到。

301번을 타면 바로 도착해요.

● 중국어 잔말 놀이(绕口令)

1단계

鼓(gǔ)上(shàng)画(huà)只(zhī)虎(hǔ), 破(pò)了(le)拿(ná)布(bù)补(bǔ)。
不(bù)知(zhī)布(bù)补(bǔ)鼓(gǔ), 还(hái)是(shì)布(bù)补(bǔ)虎(hǔ)。

2단계

爬(pá)来(lái)爬(pá)去(qù)是(shì)蚕(cán), 飞(fēi)来(lái)飞(fēi)去(qù)是(shì)蝉(chán)。
蚕(cán)常(cháng)大(dà)桑(sāng)叶(yè)里(lǐ)藏(cáng), 蝉(chán)藏(cáng)在(zài)树(shù)林(lín)里(lǐ)唱(chàng)。

3단계

四是四(sìshìsì), 十是十(shíshíshí), 十四是十四(shíshíshíshí), 四十是四十(sìshíshíshíshí)。
谁能说准四十(shuínéngshuōzhǔnsìshí)、十四(shíshí)、四十四(sìshíshí), 谁来试一试(shuílái shìyíshì)。
谁说十四是四十(shuíshuōshíshíshíshí), 就打谁十四(jiùdǎshuíshíshí), 谁说四十是细席(shuíshuōsìshíshíxí), 就打谁四十(jiùdǎshuíshíshí)。



조소균 교수, 허로천 교수

● 네티즌 신조어

① OMG 买它 : 강력 구매 추천!

OMG는 Oh my God/ 买는 사다 / 它是 그것

- 听说苹果手机13的相机功能特别好, OMG 买它!
- 듣자니 아이폰 13의 카메라 기능이 특별히 좋다던데, 꼭 사야겠어!

② 瑞思拜 (ruisībài) : 대단하다, 존경한다

영어 Respect 를 음역한 것, 중국판 쇼미더머니 (Show me the money)에서 유행됨.

- 小李这个学期的成绩都是A, 真是瑞思拜。
- 샤오리의 이번 학기 성적이 모두 A래, 정말 “리스펙트”

● 유행어 한마디

‘给力’는 중국 북방 사투리로 ‘도움을 주다, (어떤)작용을 하다, 체면을 세워 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다가, 일본 애니메이션 <서유기>에서 대사로 쓰이면서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온갖 시련을 겪으며 천축(天竺 Tiānzhú-인도)에 도착하였지만, 기대보다 별로였던 손오공이 이렇게 말한다.

这就是天竺吗, 不给力啊, 老师!

Zhè jiùshì Tiānzhú ma, bù gěilì ā lǎoshī

(여기가 천축이라구요? 에이~ 별거 아니네요, 사부!)

반대어인 ‘给力’는 ‘대박이다, 대단하다’ 의미로 네티즌들이 사용했다. 이후 ‘给力’는 중국 인민일보 헤드라인에 쓰이는 등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유행어가 되었다.

今天的天气太给力了

Jīntiān de tiānqì tài gěilì le

(오늘 날씨 완전 대박이야!)



파이허언 교수, 김정훈 교수.



● 영화 이야기 - 주선율 영화와 '1953 금성 대전투'

최근 6·25전쟁을 중국 관점으로 묘사한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의 국내 개봉과 관련하여 매스컴에 핫 이슈로 등장했다. '중공군 미화·찬양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영화는 결국 개봉이 무산되었다.

'1953 금성 대전투'는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 강원도 화천군 북쪽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충돌했던 금성 전투를 배경으로 다룬 작품이다. 중국에서 6·25전쟁을 일컫는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 70주년을 기념해 중국 시각에서 제작된 영화이다. 또한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의 TV와 영화관에서는 '홍색(애국주의) 바람'이 넘실거리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재개봉되는 '주선율(主旋律)' 영화만

22편이다. '주선율 영화'는 중국만의 독특한 장르인데, 당과 국가를 선전하는 영화를 일컫는 말이다.

상업 영화로 포장된 애국주의 고취 영화인 셈이다.



박민수 교수

● 중국의 술 - 중국의 8대 명주

음주문화는 한 나라의 문화 특징을 알려준다는 말이 있다. 전통적 유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과 중국의 음주문화에는 모두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전통이 스며들어 있다. '건배'를 외치며 술을 즐기는 한국인들은 술을 마시며, 기쁜 마음을 나누고, 술자리의 기분을 돋을 뿐, 단번에 술잔을 다 비우지는 않는다. 하지만 '간배이(干杯)'를 외치며 술을 마시는 중국인들은 술잔을 모두 비운다. 한국은 상대방 술잔에 술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비워져야 새로 술을 따르는 예의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상대방의 술잔이 비워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주도(酒道)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술잔을 채워야 하는 '노동'을 계속해야 한다.

세상 만사에 순위 매기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1950년대부터 마오쩌둥이 인정했던 마오타이(茅台酒), 美카터 대통령과 덩샤오핑이 마셨던五粮液(五糧液), 당나라 군대의 젠난춘(劍南春), 청나라 황실 저장고에서 나온 루저우라오지아오터취(泸州老窖特曲), 오백년을 이어온 편지우(汾酒), 진시황의 술 시핑지우(西風酒), 공산당의 약주인 동지우(董酒), 삼국지 조조의 사랑이 담겨있는 구징공지우(古井貢酒) 등을 '중국 8대 명주' 라는 수식어를 달아 주기도 하였다.



이범열 교수





● 중국 대학입시 소개 - 가오카오

우리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을 중국에는 가오카오(高考)라고 한다.

중국은 9월에 입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6월 초에 시험을 친다.

가오카오는 문·이과 공통으로 어문, 수학, 외국어 3과목을 치고

다시 문과는 문과 해당 2과목, 이과는 이과 해당 2과목을 친다.

배점은 어문, 수학, 외국어가 공통과목으로 각 150점으로 모두 450점이고, 문·이과 선택 2과목이 300점으로 750점 만점이 일반적인 형식이다. 1,078만명이 응시한 금년 가오카오는 6월 8일에 일정이 끝났다. 시험 과목이나 난이도는 각 성(省)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국 수석이라는 개념은 없다. 시험 응시자 천만명의 세계 최대 대학입학 시험이다. 그런데 가오카오는 지역 할당제가 있다. 즉 북경대에 응시할 때 베이징 거주 학생들에게 배당된 인원수가 있고, 나머지 지역에 배당된 인원수가 있다. 그러니 대학도 많고 시험도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면 베이징 출신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대로 응시생이 많고 좋은 대학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은 명문대 들어가기에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는 곳이 경쟁력'이라는 표현이 생겼다.



정태업 교수



● 중국 뉴스 - 3자녀로 산아제한 자유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동력으로 하여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이 것이 되레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며 '1가정 1자녀' 정책을

고수해 왔다. 1981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서면서 폭발적 증가에 위기감을 느껴 본격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중국 전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중국식 산아제한 정책은 1가정 1자녀를 기본(농촌 지역과 소수민족은 2자녀까지 허용)으로 하였으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감봉, 벌금징수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 되자 중국정부는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5년 만인 2021년 5월에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하면서 사실상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였다. 경제 발전에 따른 미혼, 핵가족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세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지만, 주택·취업·양육비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산아제한 완화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쌍순환경제'를 내세우며 내수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구감소는 향후 중국 경제에 커다란 리크스로 작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혜정 교수



뉴스레터 공지사항

Notice

● 뉴스레터 이메일 서비스 신청 안내

뉴스레터는 pdf 파일로 메일 서비스 중 입니다. 메일로 받기를 원하는 구독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분을 추천하여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 이메일: china@bufs.ac.kr ▶ 메일 제목: 뉴스레터 구독
- ▶ 보낼 내용: ① 이름, ② 소속 학교, ③ 학생 혹은 교사 구분, ④ 이메일

● 중국학부 홈 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안내

우리 학부에 관한 최신 정보는 우측 QR 코드에서 홈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중국학부 유튜브 채널



부산외대 중국학부